

2006년 APEC 정상회의 주요의제와 추진방안 - ASC 컨퍼런스(11.3) 발표자료-

2006.10.31(화)
지혜양 APEC 협력관

1. 2006년 APEC 정상회의 참가 의의

- 1989년에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이 이제는 매년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아·태지역 최고의 정책공조의 장으로 발전
-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변 4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교역량의 46.3%, 우리나라 총수출의 69.6%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력체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간 APEC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옴.
- 특히, 우리는 작년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음.
- 금년도 의장국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역동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Towards a Dynamic Comm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를 금년도 APEC 주제로 선정함. 동 주제는 아·태 지역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봄.
- APEC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던 우리나라는 금년 정상회의에서도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APEC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하여 여타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APEC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생각

2. 2006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추진방안

- 금년도 정상회의도 과거의 전통에 따라 2개의 Retreat Session과 ABAC과의 대화로 이루어짐.
 -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 (Advanc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a changing world),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APEC의 역동성,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Fundamentals ensuring dynamism,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PEC)가 선정됨.
- 또한,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어, 특히 북핵문제를 위요한 각국 간 입장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의 장으로서의 APEC의 역할이 금년에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임.

(WTO/DDA)

- APEC은 설립 때부터 '개방된 다자무역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초'라는 원칙하에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음.
- 우리나라도 작년 부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WTO/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정상들의 특별성명이 채택되도록 주도하였고, 금년 통상장관회의에서도 DDA 성명문 작성 실무회의 공동의장을 수임하며 특별성명 채택에 기여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23일 개최된 G6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시장접근(관세감축), 농업 국내보조,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감축) 등 3대 핵심쟁점 등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월 24일에 Lamy WTO 사무총장이 DDA 협상의 일시 중단을 선언
- 그 이후 ASEAN 경제장관회의(8.23-24), G20각료회의(9.9-10), 케언즈 각료회의(9.20-22) 등을 통해 주요국간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금년 말까지 DD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다만, DDA 협상의 실패가 다자무역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과 전망이 대두
- o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DDA 협상 타결을 통한 범세계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국제통상규범의 수립이 우리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따라서, 주요 회원국들에게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자국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최대한 융통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할 방침
- o 한편, 금년에도 APEC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작년처럼 DDA와 관련한 별도의 특별성명을 채택하지는 주장과 단지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나, 현재 각국의 입장조율이 진행중임.

(보고르목표 달성)

- o APEC 정상들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이른바 '보고르목표'에 합의
- o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보고르목표 채택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간점검(Mid-term Stock-take)을 실시함.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APEC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결과 도출
- o 그러나, 중간점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르 목표를 시한 내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인식하에, 작년에 심도 있는 연구와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인 부산로드맵(Busan Roadmap to implement the Bogor Goals)을 작성
 - 부산로드맵은 다자무역체제 지원, 개별행동계획(IAP) 강화,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진, 무역원활화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선구자적(pathfinder) 접근 등 6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

- 금년에는 작년에 작성된 “부산로드맵”의 세부 항목별 실행 목록과 시한을 제시하는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일명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도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도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 특히, 베트남은 동 계획을 금년도 가장 큰 성과물로 다루고 있음.
 - 하노이 실행계획은 ① 부산로드맵상의 6개 분야별로 시행해야 할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② 각 프로그램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며, ③ 각 프로그램의 시행을 돕기 위한 능력배양 조치를 제시
- 우리나라는 하노이 실행계획 중 ‘다자무역체제 지원’ 분야의 작성을 미국과 함께 주도하고 있으며, 하노이 실행계획이 부산로드맵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그간 동 계획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FTA/RTA)

- 한편, APEC은 최근 급증하는 아·태 지역에서의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어떻게 보고르목표 달성과 다자 무역체제 강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역내 RTAs/FTAs가 WTO 규범 및 APEC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2000년도 정상회의부터 강조해왔음.
 - 또한, APEC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는 최소한 WTO의 규정과 합치(WTO consistent)하고, 나아가 WTO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WTO plus)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 역내 기업인들도 급증하는 FTA에 따른 거래비용·행정비용의 증가(소위 spaghetti bowl effect)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옴.

-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APEC은 APEC 차원에서 지역협정의 동질화를 적극 추구함으로써 FTA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FTA 분야별 표준모델안” 개발 작업에 착수
 - 현재까지 14개 분야의 표준모델안이 제출되었고, 이중에 금년에는 최대 6개 정도의 표준모델에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분쟁해결 분야 표준 모델안이 금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주요성과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또한, 14개 분야 중 미합의 분야에 대해서도 2007년 중에는 표준모델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각 회원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

(아·태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 FTAAP))

- 한편, 역내 회원국 간 개별적인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표준모델안의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APEC 전체 차원의 FTA를 추진하자는 야심찬 제안 또한 제기되고 있음.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는 2004년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APEC 전체 차원의 FTA, 즉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개시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특히, 금년 1월 ABAC 회의에서는 ABAC 차원에서 FTAAP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ABAC이 금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금년 APEC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
- 한편, 미국은 금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FTAAP 창설을 APEC의 중요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안을 정상선언문에 포함시키기를 희망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금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FTAAP 논의의 개시 시점과 방법에 대해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FTAAP 추진은 역내 완전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APEC의 기본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ABAC이 금년에 FTAAP 설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을 평가
 - 다만, APEC 회원국 간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문화적 차이를 감안할 때, FTAAP를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 아울러, 처음부터 FTAAP와 같이 너무 의욕적인 FTA를 바로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역내 FTA들의 수준과 내용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을 먼저 전개함으로써, 향후 FTAAP 체결 여건을 차근 차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 참고로, 학계에서는 역내 RTA를 둘러싼 각종 제안들 간 비교우위 검토 등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됨.

(인간안보)

- 인류는 최근 수년 간 테러사태와, 지진해일 및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해, 조류독감과 같은 이동성 전염병,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문제 등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APEC도 역내 국민들의 안전과 후생을 주된 관심사중 하나로 논의
- 우리나라는 역내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안정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역내 지속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테러, 재난대응, 보건안보, 에너지 안보 등 인간안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할 방침

(경제기술협력)

- 금년도 의장국 베트남은 개도국이자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특히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도 APEC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세계화의 급물결 속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역내 인적자원개발과 기술협력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IT 분야를 활용하여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APEC e-러닝 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등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 총 2백만 불의 자금을 APEC 지원기금(ASF)에 공여할 계획
 - 현재까지 호주가 2006-8년간 220만불을 출연하였고,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300만불을 추가 출연할 계획
 - 대만도 인간안보 관련 이니셔티브에 100만불을 기여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도 ASF에의 출연을 긍정 검토중임.
- 또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어 금년도에 수행한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공동 연구」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태 지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

(APEC 개혁)

- APEC 회원국들은 APEC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APEC 운영의 효율화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 작년에 회원국 정상들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APEC 개혁 및 재정안정성에 관한 권고'를 승인
 - 동 권고는 회원국의 기여금 총액을 인상하고 예산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APEC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며, 무엇보다도 APEC 개혁 이슈를 향후에도 중점 추진의제로 다루자는 내용을 포함
-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열린 제1차 고위관리 회의(SOM) 계기에 APEC 개혁 논의를 위한 개혁 FOTC(Friends of the Chair)가 구성됨.
- 개혁 FOTC는 2006년도 APEC 개혁권고안을 마련하여 9월에 열린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 보고
 - 동 권고안은 주요 내용으로 재원 증대를 통한 사무국 강화, APEC 프로세스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 보다 명확하고 집중된 정책어젠다 개발 등 포함
-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동 개혁권고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짐.
 - 다만, 현재 의장국의 외교부 출신 인사가 맡고 있는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 직위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충원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사무국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결정
- 우리나라는 금년도 APEC 개혁 작업이 진전되어 상당히 많은 내용에 대해 합의가 도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년도 개혁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 APEC 사무국 및 각 회의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3. 기타 제기 예상 의제

(신규회원국 가입문제)

- 지난 19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향후 10년간 신규회원국 가입을 동결기로 하는 모라토리움에 합의
- 아직 모라토리움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APEC 내에서 신규회원국 가입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 그러나, 지난 9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이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자국입장의 검토에 착수하였거나 여타 회원국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모라토리움이 종료되는 2007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금년 정상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동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현재 파악되고 있는 가입희망국은 인도, 파키스탄, 마카오, 몽골, 파나마, 콜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등 10개국

(북한 핵문제)

-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14일 오후에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이와 관련,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 주제 아래서 북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주최국인 베트남이 별도 외무장관회의를 계획하고 있어 북한핵문제가 장관급 수준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4. 결 어

- 우리나라는 금번 정상회의도 아태 지역내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는 외교목표를 가지고 임할 예정
- 아울러, 새롭게 제기되는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회의참가 직전까지 상황의 진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입장을 정립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

/끝/